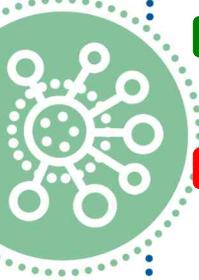




목 차

	빅데이터 동향	28
해외	- 오픈AI·메타도 쓰는 ‘AI 엔진’ 합성데이터...“안전성 검증 필요”	28
	- MS, AI 데이터센터에 117조원 투자한다	29
정책	-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30
	-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31
	- 인천시, 빅데이터 기반 AI 신호 최적화로 교통혼잡 개선	32
기업	- CJ바이오사이언스, AI 기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론칭	33
	- 카카오T, 택시 탑승 성공률 상승...“빅데이터 등 기술 고도화 효과”	34
개인 정보	- 美 사이버트럭 폭발사건에 테슬라 ‘개인 데이터 과대 수집’ 논란	35
	- 애플 ‘시리 엿듣기’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1천400억 원 지급 합의	36
	-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37





오픈AI·메타도 쓰는 'AI 엔진' 합성데이터...“안전성 검증 필요”

-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가 고갈된다는 전망이 이어진 가운데 이미 오픈 AI를 비롯한 구글, 메타 등이 활용하고 있는 '합성데이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최근 AI 모델 복잡성이 늘면서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양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데이터 생성 속도도 한정적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이슈로 인해 모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이용할 수 없음
 - 그러나 합성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형식과 구조·분포 특성을 학습해 생성된 가상데이터로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합성데이터는 이미지, 동영상 형태인 비정형데이터도 제작할 수 있어 기업은 AI와 소프트웨어 (SW) 개발에 필요한 의료·금융 데이터 등 민감·특수 데이터를 합성데이터로 대체할 수 있음
 - 특히 합성데이터는 취득하기 어려운 제조 결함이나 중대재해 사고, 화재, 드문 보안 이슈 데이터를 합성데이터로 채움으로써 모델 성능을 올리고 실제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 제조 분야나 국방, 물리보안용 AI 모델에도 유용할 수 있음
 - 업계 관계자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거나 극단적인 케이스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합성으로 얻을 수 있다”며 “데이터 수집·라벨링 과정이 생략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
-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관계자들도 합성데이터가 데이터 고갈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 주장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AI 훈련에서 누적된 인간 지식의 총합을 고갈시켰다”며 “이를 보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합성데이터”라고 밝힘
 - 일리아 수츠케어 SSI 창립자도 “컴퓨팅은 성장하고 있으나 데이터는 성장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데이터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이들의 발언은 사전 훈련을 통한 모델 성능 향상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과 일치하며 실제로 오픈AI와 구글, 엔트로픽 등이 지난해 더 많은 컴퓨팅 인프라를 투입하고도 최신 모델이 기대만큼의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은 이유로 데이터 고갈이 꼽히기도 함
- 그러나 합성데이터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보 편향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합성데이터 자체가 허위 정보나 편향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합성데이터 내 개인정보가 재식별될 수도 있으며, 합성데이터 품질이 낮은 상태에서 AI 학습에 활용되면 모델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이에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를 발간

출처 : ZDNet Korea(2025.01.10.) 오픈AI·메타도 쓰는 'AI 엔진' 합성데이터...“안전성 검증 필요”
 AIT타임스(2025.01.09.) 머스크 "AI 훈련 데이터 지난해 이미 고갈...합성 데이터가 보완책"



MS, AI 데이터센터에 117조원 투자한다

-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 모델들을 훈련하고, AI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반 앱을 배포하기 위한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2025 상반기 800억달러(약 117조원)를 투자하기로 함
 - MS는 그간 신생 스타트업부터 기반이 탄탄한 기존 업체들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바탕으로 AI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또한 AI 산업을 주도하는 오픈AI의 핵심 투자자로 현재까지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성장세를 타고 있는 엔트로픽 및 xAI뿐만 아니라 MS 소유의 AI 구동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업체들과도 협력 중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 MS는 중국이 개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게 미국 AI 인프라가 해외에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
 - MS 측은 현재 전 세계 AI 산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 자본 투자와 미국 기업들의 혁신 덕분이며 미래에도 주도권을 중국에 빼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함
 - 중국은 이미 보조금을 통해 개도국들이 부족한 반도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는 각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한 나라가 중국의 AI 플랫폼으로 표준화되면 미래에도 계속해서 중국 플랫폼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통해 보안 데이터센터의 AI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만 강한 규제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수출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5.01.05.) MS, AI 데이터센터에 117조원 투자한다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
 - 2024년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질병관리청은 2024년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모델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 ‘K-CURE(국립암센터)’, ‘코로나19 환자치료 격차 분석(강원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세 건을 이용하여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개방을 시작
- 이에 더해 질병관리청은 자체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
 - *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제외하고 제1급(17종), 제2급(20종), 제3급(27종)
 - 위 데이터는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dportal.kdca.go.kr>알림·자료>공지사항)에서 신청한 서류(연구계획서, 자료이용신청서 등)를 심의하여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
 - 또한, 표 형태로만 제공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기존 감염병 통계를 대시보드로 구축하여 막대나 선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OpenAPI*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서비스나 데이터를 개방하여 개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

<감염병 누리집 내 통계 대시보드 화면>



- 질병관리청 측은 “감염병 정보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2024.12.31.)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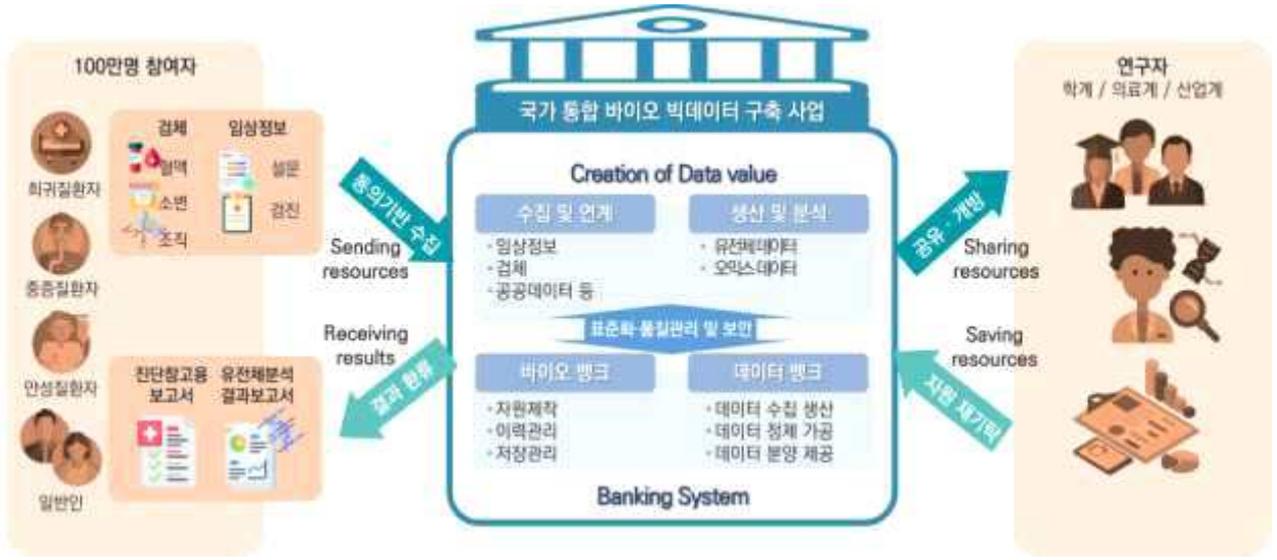
빅 데이터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하 관계부처)은 지난 12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출범식을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총 38개 의료기관 등이 참석
 - 그간 관계부처는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요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지정기관 및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하여 임상정보·공공데이터·유전체데이터 등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사업
 - 1단계(’24~’28년) 동안 희귀질환자·중증질환자·일반참여자 총 77.2만 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2단계 사업(’29~’32년) 추진을 통해 총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
 -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사업단 누리집(<https://www.biobigdata.kr>)을 통해 사업 설명과 예약 등 참여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참여 유형(희귀질환자·중증질환자·일반 참여자)에 맞는 기관을 방문하여 동의서와 설문지 작성 후 혈액·소변 등 검체와 임상정보를 기탁할 수 있음
 - 수집된 데이터와 검체는 데이터뱅크와 바이오뱅크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활용되며 향후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 연구자에게 ’26년부터 개방할 예정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 관계부처는 “바이오 빅데이터는 국민보건과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정밀의료·맞춤의료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12.19.)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인천시, 빅데이터 기반 AI 신호 최적화로 교통혼잡 개선

- 인천광역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인 인공지능 기반 신호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10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했다고 밝힘
 - 신호 최적화란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작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통량, 시간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신호주기(초록불·빨간불의 지속 시간)를 조정함으로써 차량의 정체를 줄이고 통행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
 -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호 최적화는 빅데이터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신호 운영 방식을 도출하는 고도화된 기술
-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가 구축한 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교통정보를 활용해 주요 간선도로 10개 구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신호 최적화를 진행
 - * 주요 교차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집되는 영상을 이용, 차로별 교통정보를 수집
 - 교통종합상황실을 합동 운영하면서 교통 신호 운영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정체 구간을 선정하고, 최소 200회 이상의 강화학습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교통 신호 시간(TOD, Time of Day)을 도출하여 이를 정체 구간에 적용
 - 그 결과 통행속도는 평균 4.4% 향상되고, 지체 시간은 평균 8.0% 단축됐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98.9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인공지능 기반 신호최적화 수행단계>

최적화 대상도로 선정	분석대상 도로 현황분석	신호 최적화 수행	최적화 효과 비교 분석
상습정체 구간 도로 선정 · 혼잡 도로구간 중 최적화 대상 도로구간과 요일 선택	대상구간 운영지표 확인 · 대상 도로구간 현황분석 수행 후 교통운영 지표 산출	AI기반 최적 결과값 도출 · 강화학습으로 시뮬레이션 반복 수행 후 최적의 TOD 생성	전/후 분석 및 결과 비교 · 신호 최적화 전/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 인천시는 '2025년 교통 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신호 최적화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에도 검단로 등 8개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호 최적화 적용을 확대할 계획

출처 :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5.01.10.) 인천시, 인공지능(AI) 기반 신호 최적화로 교통혼잡 개선



CJ바이오사이언스, AI 기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론칭

- CJ바이오사이언스가 소비자 직접 의뢰 방식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 분석 서비스인 ‘스마일 것(SMILE GUT®)’을 론칭했다고 밝힘**
 - CJ바이오사이언스는 장과 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14개 주요 종합·대학병원과 공동 연구를 지속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를 고도화해 옴
 - 그 결과 CJ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부터 의료기관 대상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인 ‘것인사이드(GUT INSIDE)’를 론칭해 현재는 80여개 병의원에 서비스하고 있음
 - ‘스마일것’은 것인사이드를 기반으로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
- 스마일 것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점수인 ‘장 건강 지수(GMI, Gut Microbiome Index)’, 개인별 장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14만 건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AI 분석을 진행해 정교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진단이 가능**
 - 소비자는 스마일 것의 공식 홈페이지 구매 채널을 통해 검사 의뢰를 한 후 키트에 채변 샘플을 보내면 염증, 유익균 등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리포트를 받을 수 있음
 - 분석 리포트를 통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뿐 아니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 가능하고 식재료·레시피·프로바이오틱스 등 소비자가 스스로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받을 수 있음

<CJ바이오사이언스 스마일 것>



- CJ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신규 서비스를 통해 CJ그룹 웰니스 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
 - 스마일 것으로 확보한 장내 미생물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CJ제일제당 및 CJ그룹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식단 제공 등 초개인화 트렌드에 맞춘 신사업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출처 : 이데일리(2025.01.13.) CJ바이오사이언스, AI 기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론칭



카카오T, 택시 탑승 성공률 상승...“빅데이터 등 기술 고도화 효과”

-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3년간 연간 최대 호출 이용자수를 기록한 날의 택시 탑승 성공률*이 매년 상승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22년 대비 12%p 이상 증가를 기록하며 큰 폭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밝힘

* 택시 호출을 시도한 이용자가 실제로 택시에 탑승해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

-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카카오T 택시 호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날은 각각 12월 17일, 12월 16일, 12월 21일로 모두 연말 시즌이었으며, 각각의 탑승 성공률은 71.3%, 75.4%, 83.4%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연간 최대 호출 이용자수 기록일의 택시 탑승 성공률>

연도	연간 최대 호출 이용자수 기록일	택시 탑승 성공률
2022년	12월 17일 (토)	71.3%
2023년	12월 16일 (토)	75.4%
2024년	12월 21일 (토)	83.4%

-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와 택시기사의 배차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적 역량을 고도화해 최적화된 배차 연결을 제공

- 카카오모빌리티의 AI 배차 시스템은 운행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기사의 목적지 선호도, 운행 품질, 배차수락률 등을 분석하여 호출 수락 확률이 높은 후보군을 예측
- 해당 후보군 중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기사 1명에게 콜을 발행하고, 해당 기사의 배차 수락 여부에 따라 다른 후보군 또는 도착 예정 시간이 가장 짧은 기사에게 순차적으로 콜을 발행
- 그 외에도 교통량 예측 알고리즘과 실시간 위치데이터 및 교통정보 반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확한 예상 소요시간과 요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배차 시 참조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임
- 위 방법을 통해 호출 수락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승객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다량의 콜 발행으로 인한 기사의 피로도를 낮춤

-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빅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발전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빅 데이터



출처 : 카카오모빌리티 뉴스룸(2025.01.13.) 카카오 T 택시, 호출 이용자 역대 최대 몰린 연말 운행지표 개선...“기술 고도화 효과”



美 사이버트럭 폭발사건에 테슬라 ‘개인 데이터 과대 수집’ 논란

-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호텔 앞에서 1월 1일(현지시간) 발생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으로 인해 테슬라 차량의 개인정보 수집이 미국에서 조명을 받고 있음
 - 이번 폭발 사건 해결 과정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운전자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데다 정부 당국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
- 테슬라는 사고 발생 직후인 1월 2일 수사 당국이 사고 차량 잔해에서 데이터 및 영상을 추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팀을 파견하고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충전소 영상도 제공
 -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주차 지원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대부분 위치 정보나 카메라 영상에 접근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경우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 운전 지원에 사용되는 카메라, 차량 내 컴퓨터, 미국 전역의 전용 충전소 등을 통해 사이버트럭이 각종 정보를 수집해 동선 등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추측
 - 실제 수사 당국은 사이버트럭 폭발사건의 용의자이자 운전자가 애리조나주의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서 차량을 충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으며, 수사 당국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영상을 비롯하여 데이터를 기록한 드라이브를 복구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밝힘

<사이버 트럭 폭발 사건 용의자의 충전소 이용 영상>



- 미국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테슬라를 비롯한 차량이 얼마나 많은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적도 나옴
 -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 재단인 모질라 재단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 25곳 중 75% 이상이 운전자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수사당국이나 정부 요청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힘

출처 : 연합뉴스(2025.01.06.) 美 사이버트럭 폭발사건에 테슬라 ‘개인 데이터 과대 수집’ 논란



애플 ‘시리 엿듣기’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1천400억 원 지급 합의

-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제출

<애플 시리>



- AP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12월 31일 총 9천500만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
-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2023년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됨
- 청구인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 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애플 측은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 중 3~5%만이 실제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 소송의 청구인들은 시리가 몰래 활성화되어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으며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
 - 이용자가 애플 기기 근처에서 대화한 뒤 그 내용에 포함됐던 나이키 운동화 ‘에어 조던’에 관한 타깃 광고를 받은 사례 등이 소송 내용에 포함
 - 청구인들은 이런 사례들이 애플의 오랜 개인 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애플은 합의안에서 이런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음
- 외신에 따르면 위 금액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후 벌어들인 7,050억 달러(약 1,037조 원)의 이익이나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15억 달러(약 2조2천억 원)와 비교했을 때 극히 일부에 그침

출처 : 연합뉴스(2025.01.03.) 애플 ‘시리 엿듣기’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1천400억 원 지급 합의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비전으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자율주행 개발 등 가명처리만으로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등 AI 개발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확대
 -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인정보 합성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신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
 - 불특정 다수가 촬영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곤란한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칭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생체인식정보 처리 원칙 등을 구체화
-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예정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

의료 분야			통신 분야	자율 분야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	해외 체류 국민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복약 관리 및 약물 처방 지원	최적 통신요금 추천	여행지·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부당한 전송 유도·유인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해외사업자 등의 매출액 자료 비협조에 대한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 강화와 조사·처분 제도 정비
- (촉촉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민간 안전망 구축
 - IP 카메라 등 일상에서 활용되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을 통한 법정 인증화를 추진
 -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조사·처분을 받은 후 3년 내에 추가적인 실태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5.01.13.)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